Daishin 증권

2026년 03월 09일 월요일

Morning Meeting Brief

Daishin's VIew

[Daishin's View] 2026 년 3 월 2 주차

- 금리: 기대 인플레에 따라 다르게 반영되는 채권에 대한 안전자산 선호 경로 환율: 단기 변동 확대, 그러나 일단락 후 빠른 안정 예상
- 국내증시: KOSPI 변동성 크지만 펀더멘털은 견고, 공포 정점 통과 글로벌 증시: Mr. 선진국 마켓. 3월 오른다. 투자환경 Risk-on 국면
- 원자재: 원유 수출 차질 발생했으나, 1개월 내 종식 뷰 유지 부동산: 주택시장 강한 '구두개입' 약보합 고려. 상업용 Quality 자산 선호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Strategy

[주간 퀀틴전시 플랜] 이례적인 Panic Sell 이후 KOSPI 전망. Deep Value 국면 & 매도 Climax 통과

- 경기 확장, 실적 개선 국면에서 사상 첫, 최대 단기 급락을 보인 KOSPI
- 유가 상승, 고용 쇼크 여파, KOSPI는 5,000선 전후 지지력 확보 예상
- 선행 PER 9배 하회, 외국인 매도 Climax 통과 중. 2차 변동성은 비중확대 기회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Strategy

[퀀틴전시 플랜] 학습된 리스크, 노이즈를 압도한 정책과 펀더멘털 동력

- 지정학적 리스크에 학습된 시장, 악재성 이슈에도 상승 마감
- 코스닥 시장 아웃퍼폼에 주목. 정책기대가 더해진 순환매
- 전일 서킷브레이커 이후 매수 사이드카 발동. 급락한 주도주를 중심으로 반등

정해창. haechang.chung@daishin.com

Global Strategy

[대신증권 문건우] 중국 양회(兩會), 단기 지표보다 산업 구조 전환에 주목

- 중국 정부, 내수 회복 지연과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경제성장률 목표치 하향
- 이번 양회의 핵심은 인공지능(AI)·반도체·첨단 제조 중심의 산업 구조 전환
- 3.11일 양회 종료까지 추가적인 내수 회복 및 인프라 투자 정책 기대

문건우. Gunwoo.moon@daishin.com

산업 및 종목 분석

[Industry Report] 통신서비스: AI 시대에 통신의 먹거리 (MWC 2026 참관기)

- MWC 2026: The IQ Era(지능의 시대). AI와 연결성이 결합한 지능형 혁신
- 통신의 과제는 N/W 고도화, 지능화를 통한 생태계 지원 및 BM 발굴
- AI 진화 기준으로는 Agentic AI, Layer 기준으로는 DC와 미들웨어 및 B2C

김회재. hoijae.kim@daishin.com

[Industry Report] 중동 전쟁 영향 점검과 시나리오별 투자전략

-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의 핵심은 '지속 기간'. 장기화될수록 부담 ↑
- 중동 리스크 관련 다섯가지 변수와 네가지 시나리오별 투자전략 제시
- Top Picks 기아. 이외 주목해야할 이벤트/지배구조개편 가능성 점검

김귀연. gwiyeon.kim@daishin.com

Daishin's View

Daishin Research Center

2026년 3월 2주차

[금리] 국고 3년 2.80~3.30%

기대 인플레에 따라 다르게 반영되는 채권에 대한 안전자산 선호 경로

이란 전쟁 이후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기인한 채권에 대한 안전자산 선호 경로가 과거와 달리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 팬데믹 이후 크게 높아진 인플레이션 기대 부담을 금리가 반영.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와 함께 최근 금리 형성의 핵심 내러티브가 수급 이슈로 이동했다는 점도 안전자산 선호 경로를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

[환율] 달러원 환율 1,380~1,520원

지정학 리스크에 단기 변동성 확대, 그러나 사태 일단락 후 빠르게 안정 예상

미-이란 전쟁으로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달러 단기 강세 전환 및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 높은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 절하 압력 심화. 그러나 전쟁 장기화 되지 않는다면 매크로 환경에 미칠 영향은 제한. 연준 연내 인하 가능성도 유지될 것으로 판단. 유가가 안정되는 대로 달러-원은 빠르게 1.400원대 중반 복귀 예상

[국내 증시] KOSPI 5,000~7,500p

중동 리스크로 KOSPI 변동성 ↑ 펀더멘털은 견고, 공포심리, 매도 Climax 정점 통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로 인해 KOSPI 5,000선 초반까지 레벨다운. KOSPI 5,000선은 선행 PER 7.96배, Deep Value 구간. 지정학적 리스크 쇼크 선반영. 대화/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때까지 분쟁 이슈에 따른 급등락 감안. 장기화(3개월 이상) 만 아니라면 정책/실적 동력 재확인하며 분위기 반전, 추세 반전 모색할 것

[글로벌 증시] S&P500 6,400 ~ 7,700p

Mr.Market은 오른다. 3월 투자환경, Risk-On 국면. 2월 변수의 긍정 파급효과 지속

3월 증시, 계절적 상승 구간(평균 1.7%). 2월 변수(물가, 관세, 실적)의 긍정적 파급효과 지속. 특히 엔비디아(FY 4Q26) 실적, AI 디스럽션 우려 낮추는 단초 역할. AI 고평가 우려는 기우. 트럼프 관세, 현 글로벌 유동성 장세의 바탕(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요국 정책대응 산물). 美 2월 고용 등 매크로 변수, 연준 금리 인하 및 할인율 축소 기대 높일 것. 비중확대

[원자재] WTI 70~85$/bbl.

이란 전쟁발 원유 수출 차질 발생했으나, 단기(1개월) 내 종식된다는 기존 뷰 유지

선주들은 이란 전쟁 우려해 호르무즈 해협 기피, 저장 시설 부족한 이라크는 감산(150만b/d) 단행. 현재 수출 중단 물량만 377만b/d, 사태 악화 시 글로벌 공급 5.2~6.5%까지 차질 가능. 다만, 지금은 대응의 구간이지만 단기(1개월) 내 종식 예상. 1)이란의 협상 시도와 2)지상군 투입 지양하는 트럼프, 3)이란 전쟁이 미중 정상회담의 레버리지로 활용되고 있단 점이 핵심

[부동산] 주택 : [조건부] 보합, 상업 : 상승.

주택시장에 강한 '구두개입 ', 약보합까지 고려. 상업용 Quality 자산 선호도 지속

주택 : '다주택자 엄포 ' 는 거들 뿐 핵심은 1주택자 증세 수준과 금리로 판단. 1주택자의 과세 수준에 따라 5월 이후에도 물량 증가 가능성 有, 전세가율 높은 지역은 수요 드리븐 상승 기대. 상업 :25년 여름 기대했던 3% 중반 금리 대신 선순위 하단이 4% 높아진 상황. 유동성 충분한 상황에서 수급은 대형/신축/주요권역으로 집중될 가능성 높은 상황

Strategy

Strategist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Strategist Jr. 정해창
haechang.chung@daishin.com

이례적인 Panic Sell 이후 KOSPI 전망. Deep Value 국면 & 매도 Climax 통과

- 경기 확장, 실적 개선 국면에서 사상 첫, 최대 단기 급락을 보인 KOSPI
- 유가 상승, 고용 쇼크 여파, KOSPI는 5,000선 전후 지지력 확보 예상
- 선행 PER 9배 하회, 외국인 매도 Climax 통과 중. 2차 변동성은 비중확대 기회

경기 확장, 실적 개선 국면에서 사상 첫, 최대 단기 급락을 보인 KOSPI

지난주 KOSPI는 단 2거래일만에 18.43% 폭락하며 고점대비 19.24% 급락. 사상 유례없는 충격파. 과거 이와 같은 서킷 브레이커 발동, 대폭락은 경제위기나 금융위기, 통화정책 긴축 이슈 등에서 발생. 이번에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장기화 우려가 트리거였지만, 연초 이후 KOSPI 독주로 인한 후폭풍으로 판단 1) 26년 KOSPI 수익률은 장 중 고점대비 50%를 상회. 수익률 2등인 대만도 22.3% 수준. 미국은 보합권. 한국 증시는 글로벌 증시 대비 일방적인 독주를 했던 상황 2) 4,600선부터 매도 전환, 5,000선부터 매도 강화를 했던 외국인 매도가 지속되었고, KOSPI 독주를 주도했던 금융투자의 매도 전환이 대폭락의 원인으로 판단

향후 중동 리스크 향배가 중요하지만, 가격조정은 일단락 되었다고 판단 과거 고점대비 20% 이상 하락은 경기 하강 사이클에서 전개되었고, 경기 침체 또는 금융위기, 시스템 리스크에서 30% 이상 급락한 바가 있음 하지만, 현재는 경기 선행지수의 상승세가 뚜렷하고, 실적 전망, 선행 EPS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 펀더멘털 동력은 여전히 견고한 상황

유가 상승, 고용 쇼크 여파, KOSPI는 5,000선 전후 지지력 확보 예상

지난 주말 유가 90달러 돌파, 고용 쇼크 여파로 추가적인 변동성 확대, 등락은 감안해야겠지만, KOSPI는 5,000선 전후에서 지지력 확보 예상 1) KOSPI 5,000선 이하는 선행 PER 8배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극심한 저평가 영역. 2) 고점대비 20% 이상 하락은 펀더멘털대비 UnderShooting 구간으로 판단 당분간 미국, 이란 등의 주요 인사들의 발언에 의한 일희일비 국면은 불가피. 엄청난 대규모 변동성 확대 이후 여진. 2차 변동성 확대는 비중확대 기회

이번주 11일 CPI(예상 2.4%, 전월 2.4%)와 근원 CPI(예상 2.4%, 전월 2.5%)와 13일 근원 PCE(예상 3.0%, 전월 3.0%) 발표 우려했던 관세 영향에 의한 물가 상승 압력도 점차 둔화되는 양상. 고용 악화에 이은 물가 안정 확인시 통화정책 완화, 금리인하 기대가 강해질 수 있음 9일 중국 물가지표도 중요. 중국은 양회에서 소비 및 투자 확대 목표를 수립. 2월 물가 데이터는 글로벌 디플레이션 압력 완화의 척도. PPI의 개선은 시클리컬 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 완화. CPI 개선은 중국 소비 개선과 수출/소비주에 호재가 될 수 있음

경기 확장, 실적 개선 국면에서 사상 첫, 최대 단기 급락을 보인 KOSPI

선행 EPS 상승 & 외국인 순매수 유입 중인 건강관리, 소매(유통), 화장품/의류, 필수소비재, 2차전지 업종 주목. 성장주, 내수주로 중동 리스크에 한 발 빗겨나있고, 금리인하 기대 유입 시 채권금리 하향안정과 함께 가격,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될 수 있음. 이들 업종은 26년 KOSPI 상승 국면에서 소외주 한편, 주도주인 반도체, 자동차, 방산/조선, 금융 업종은 단기 급락 이후 분위기 반전 모색 중. 실적, 업황 등 펀더멘털 동력은 유효한 가운데 부담되었던 과열, 상승피로가 이번 급락으로 완화/해소되고 있음. 상승추세가 강한 만큼 40MA, 50MA 지지력 테스트 전개시 비중확대 전략 가능할 것

Strategy

학습된 리스크, 노이즈를 압도한 정책과 펀더멘털 동력

Strategist Jr. 정해창
haechang.chung@daishin.com

Strategist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 지정학적 리스크에 학습된 시장, 악재성 이슈에도 상승 마감
- 코스닥 시장 아웃퍼폼에 주목. 정책기대가 더해진 순환매
- 전일 서킷브레이커 이후 매수 사이드카 발동. 급락한 주도주를 중심으로 반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학습된 시장, 악재성 이슈에도 상승 마감

– 전일 이란 혁명수비대의 페르시아만 미국 유조선 타격과 카타르의 LNG 생산 차질로 에너지 가격 상승. WTI유가가 한때 80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긴장감 확대

– 그러나 이번주 급락–급등을 겪으며 밸류에이션에 근거한 코스피 5,000선의 지지력 확인. 등락 학습효과 반영되며 저가매수 유입.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전환

– 향후 수주간 지정학적 이슈 소화 예상. 미국과 이란 모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강경발언과 무력행사가 단기 심리적 불안을 자극할 수 있으나 대내외 여건상 협상을 통한 긴장 완화가 더 합리적 시나리오

– 3월을 넘기는 장기화가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정책/실적 동력 재확인하며 상승 재개 예상. 최근 등락 국면에도 골드만삭스는 KOSPI 목표주가를 6,400pt에서 7,000pt로 상향하며 긍정적 시각 유지

코스닥 시장 아웃퍼폼에 주목. 정책기대가 더해진 순환매

– 코스닥은 수요일 서킷브레이커 이후 연속으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급반등

– 이번주 등락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코스피 대비 아웃퍼폼하는 모습이 뚜렷

– 3차 상법개정 이후 정부 정책은 코스닥 활성화로 이동.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 증여세법개정)"에 이어 "PBR 1배 미만 상장사 밸류업 계획 공시 의무화법(자본시장법 개정)"이 발의. 중소형 저평가 기업 주가 정상화를 위한 정책 방향성 설정

– 정책 기대와 함께 급등했던 코스피(26년 최대 50% 상승)의 차익실현 이후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코스닥(26년 최대 28% 상승)의 키맞추기, 로테이션 매매 전개

전일 서킷브레이커 이후 매수 사이드카 발동. 급락한 주도주를 중심으로 반등

반도체 소부장: 원익QnC(+20.0%), 한화비전(+9.6%), 테크윙(+7.2%) 등

2차전지소재: 에코프로머티(+12.0%), 에코프로(+5.7%), 엘앤에프(+10.8%)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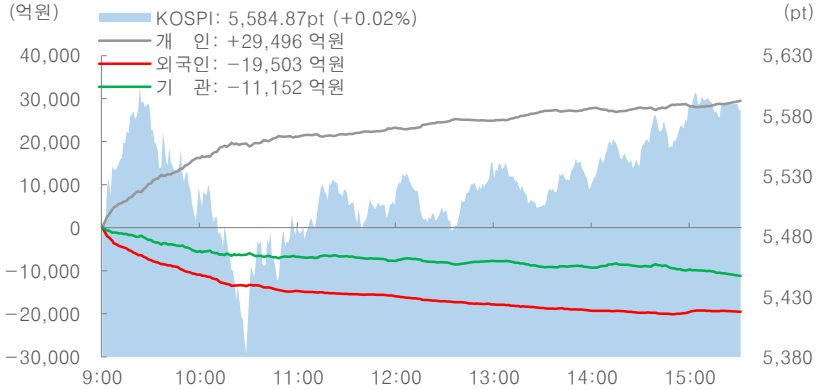
미디어/엔터: 에스엠(+6.2%), 와이지엔터테인먼트(+8.3%) 등

–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에너지와 방위력 안보에 대한 중요도 상승

재생에너지: HD현대에너지솔루션(+30.0%), 한화솔루션(+16.7%) 등

방산: LIG넥스원(+9.3%), 한화에어로스페이스(+7.2%), 한화시스템(+5.4%) 등

KOSPI 투자주체별 수급 및 장중흐름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Global Strategy

중국 양회(兩會), 단기 지표보다 산업 구조 전환에 주목

EM Strategist 문건우
gunwoo.moon@daishin.com

Global & DM Strategist 문남중
namjoong.moon@daishin.com

- 중국 정부, 내수 회복 지연과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경제성장률 목표치 하향
- 이번 양회의 핵심은 인공지능(AI)·반도체·첨단 제조 중심의 산업 구조 전환
- 3.11일 양회 종료까지 추가적인 내수 회복 및 인프라 투자 정책 기대

2026년 중국 양회, 경제성장률 목표치 4.5~5.0% 제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3.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에서 '26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4.5~5.0%로 제시했다. 이는 35년 만에 4%대 성장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1) 내수 회복 지연, 2)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3)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이 반영된 결과다. 그 외 소비자물가지수(2%), 재정적자율(4%), 도시 실업률(5.5%), 신규 일자리 창출(1,200만개) 등 주요 거시경제 목표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며 경기 안정 관리 기조를 이어갔다.

경제성장률 목표치 하향보다, 중장기 산업 구조의 질적 상승이 핵심

경제성장률 목표치 하향은 이미 예상됐던 결과다. 실제 '25.12월 기준 소매판매 증가율은 0.9%(YoY 이하)로 7개월 연속 둔화됐고, 누적 고정자산투자(-3.8%)와 부동산투자(-17.2%) 부진도 이어졌다. '26년 춘절 기간 국내 관광수입(8,035억 위안)과 관광객수(5.96억 명)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1인당 지출액은 150위안으로 '25년(169위안)을 하회하며 소비 회복 역시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앞서 31개 지방 정부 가운데 21개 지역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선제적으로 하향했던 만큼, 경제성장률 목표치 조정에 따른 시장 충격은 크지 않았다.

이번 양회의 핵심은 신질생산력(新質生産力) 중심 산업 구조 전환에 있다. 3.5일 리창 총리는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인공지능(AI)를 7차례 언급하며 1) AI·반도체·로봇·항공우주·바이오·신에너지 등 첨단 산업 육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에도 2) 재정지출 규모는 5.89조 위안으로 전년대비 2,300억 위안 증가했고, 3)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은 4,264억 위안(+10%)으로 확대되며 '26년 R&D 지출이 4조 위안을 상회할 전망이다. 4) 주요 지방 정부 역시 4대 전략·신흥산업과 6대 미래 산업을 핵심 육성 산업으로 제시하며 구조 전환에 동참했다.

양회 정책 발표는 이제 시작. 15차 5개년 계획 논의 속 경기 부양 기대도 확대될 것

이번 양회의 대주제는 산업 구조 전환에 있으나, 내수 회복 정책 또한 병행될 것이다. 중국 정부는 1) 1.16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15차 5개년 계획('26-'30년) 중 소비 확대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2) 1.19일 인민은행도 재대출 금리 등 구조적 통화 완화 정책을 통한 실물 경제 지원을 약속했다. 전인대 기간 3) 경제·민생·외교 장관 논의(3.6~3.8일), 4) 15차 5개년 계획('26~'30년) 초안 논의(~3.11일)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소비 확대 및 인프라 투자 정책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이다.

결론적으로 중국 정부는 이번 양회를 통해 단기 지표보다 중장기 체질 개선, 즉 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내수 회복 정책 효과가 점진적으로 확인되고 산업 구조의 질적 개선이 글로벌 제조업 회복 흐름이 맞물릴 경우, 경기 부양 기대 확대가 증시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 ETF] 미국(MCHI): iShares MSCI China ETF/ 한국(A283580): KODEX 차이나CSI300

Industry Report

통신서비스업

AI 시대에 통신의 먹거리 (MWC 2026 참관기)

- MWC 2026: The IQ Era(지능의 시대). AI와 연결성이 결합한 지능형 혁신
- 통신의 과제는 N/W 고도화, 지능화를 통한 생태계 지원 및 BM 발굴
- AI 진화 기준으로는 Agentic AI, Layer 기준으로는 DC와 미들웨어 및 B2C

김회재 hoijae.kim@daishin.com

투자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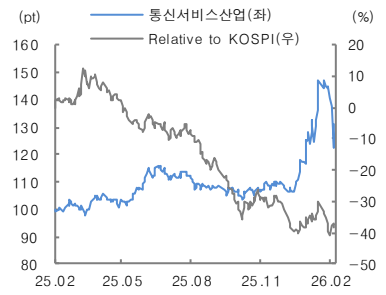
Overweight

비중확대, 유지

Rating & Target

종목명	투자의견	목표주가
KT	Buy	74,000원
SK텔레콤	Buy	97,000원
LG유플러스	Buy	20,000원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0.7	19.4	20.2	31.6
상대수익률	-6.9	-12.3	-31.0	-39.7



MWC 2026. 지능의 시대를 맞이하는 통신의 역할

인프라의 지능(Infrastructure Intelligence)과 휴먼 인사이트(Human Insight)의 결합. 5G 및 30년에 도입될 6G를 기반으로 AI가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도래

AI 시대에 통신의 먹거리는 무엇인가? Agentic AI, Physical AI, N/W 효율화

AI 시대에 통신의 역할은 유무선 N/W과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지원 역할로 시작. 5G 상용화 7년차를 맞이하여 통신은 AI 관련 BM 발굴에 집중

AI 산업은 진화단계 기준으로 인지 AI 및 생성형 AI를 지나 Agentic AI와 Physical AI 영역으로 진입

통신은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등 자체 LLM 구축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는 Sovereign AI를 대비하기 위한 용도이고, BM 관점에서는 Agentic 이후 단계 공략

AI 산업은 Layer 관점에서 보면, 가장 근간이 되는 인프라를 기반으로 미들웨어/플랫폼 및 최종 결과물인 서비스로 구성

통신은 전통적으로 강점이 있는 인프라 영역의 DC를 캐쉬카우로, 서비스 영역에서 B2C에 해당하는 Agentic AI를 BM으로 공략. Physical AI의 경우는 직접적인 BM화 보다는 N/W 관점에서의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BM이 발굴되도록 기여

직간접적인 BM 발굴을 위해 기존 N/W을 효율화하는 AI-RAN, Edge 및 5G-SA, 5G-Advanced 도입을 추진 중이고, 6G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연구 시작

한국 통신사들의 AI 준비 상황

26년 중 5G-SA 상용화 및 5G-Advanced 준비. 30년 상용화 예정인 6G에 대한 연구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전망

SKT. AI 산업의 발전 단계 기준 AI 에이전트에 집중. 한편,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생성형 AI의 Sovereign(주권)화도 병행

AI의 Layer 기준으로는 울산 AIDC 등 인프라를 더욱 강화하고, 에이닷의 고도화를 통해 AI 에이전트 시장도 공략

KT. AI의 Layer 기준으로 AIDC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MS, Palantir 등 글로벌 빅테크와 협업하여 미들웨어 Layer에서는 자체 시스템 효율화 및 B2B 시장 공략 중. 가장 상단의 서비스 영역에서는 Agentic AICC 서비스 출시

LGU+. AI 산업의 발전 단계 기준 생성형 AI와 에이전트 AI 영역에 해당하는 ixi

AI의 Layer 기준으로는 파주 AIDC 등 인프라 강화. 가장 상단의 서비스 영역에서는 ixi 기반의 ixi-O(익시오) 등 B2C 서비스 출시

Industry Report

자동차/부품

중동 전쟁 영향 점검과 시나리오별 투자전략

-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의 핵심은 '지속 기간'. 장기화될수록 부담 ↑
- 중동 리스크 관련 다섯가지 변수와 네가지 시나리오별 투자전략 제시
- Top Picks 기아. 이외 주목해야할 이벤트/지배구조개편 가능성 점검

김귀연 gwiyeon.kim@daishin.com

투자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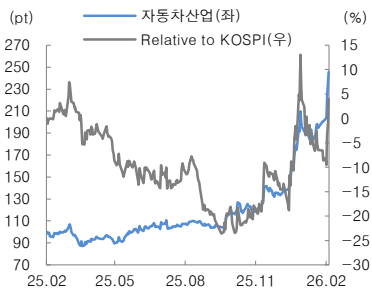
Overweight

비중확대, 유지

Rating & Target

종목명	투자의견	목표주가
현대차	Buy	660,000원(유지)
기아(★)	Buy	230,000원(유지)
현대위아	Buy(상향)	105,000원(상향)
SNT모티브	Buy	51,000원(유지)
현대오토에버	Buy	250,000원(유지)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29.2	102.1	129.3	148.0
상대수익률	5.2	29.0	17.1	4.1



전쟁이라는 암초: 2026.03월 첫 주 자동차 업종 WoW -17% 하락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 전쟁 우려로 국내 증시/자동차 업종 주가 큰 폭 하락. 외국인/기관이 자동차 업종 -7,424억/-6,278억 순매도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의 핵심은 '장기화 여부'. 중동 갈등이 장기화/전면전화 된다면, 1) 에너지 가격 상승, 2) 운임/물류차질 가능성 상승, 3) 인플레 지속에 따른 금리 인하 지연, 4) 글로벌 경기 위축 예상

중동발 리스크, 변수 분석 및 지속 기간별 시나리오 분석

중동 리스크 관련 주요 변수 다섯가지 분석: ① 산업수요, ② 에너지 비용, ③ 운임, ④ 인플레/금리, ⑤ 환율. 자동차 투자전략으로는 안정/보수적인 포트폴리오 갖고 가되, 1) 트럼프 승리(철수) 선언 가능성에 따른 반등 시점 주목, 2) 단기 이벤트 모멘텀 대응하는 전략 추천. 당사에서 제시한 네가지 시나리오 중 (3) 중기전을 대비하며 (2) 단기전 가능성을 열어두는 전략. Top Pick 기아

중동 이슈를 걷어낸다면?

중동발 리스크 확대에도 현대차그룹의 1) 26년 휴머노이드 로봇 초도 양산에 따른 수주, 2) 현대차그룹 SDV/자율주행 전략 추진 지속될 것. AW2026 행사에서 중국 로봇/AI 현업자들은 로봇 고도/범용화의 조건으로 양질의 데이터를 강조. 현대차그룹은 레거시OE 중 유일하게 자체 AI데이터센터/팩토리 구축 => 로보틱스/자율주행 관련한 경쟁력 확보 가속 => 프리미엄 정당화의 근거

주목할만한 이벤트로 [3월] 테슬라의 옵티머스 V3 공개 및 생산 전략 구체화/미국 AI/로봇 관련 상무부 보고서 발간/엔비디아 GTC2026, [4월] 기아 CID, 테슬라 사이버캡 양산 가동 제시. 3Q25 현대차 SDV 테스트카 출시 예정돼 있어 피지컬AI 관련 신사업 모멘텀은 2026년 연중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벤트에 따른 주가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 있겠다.

지배구조개편 가능성: 현대차그룹 기업가치 변동성 확대로 대주주의 상속세 비롯한 변동성도 커짐. 기업가치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 추가 가중. 변동성 확대에 따른 개편 전략 시행 가능성 체크 필요

중동 전쟁 지속 기간별 대응 전략

단계	자동차 투자전략	자동차 수요	종목 대응
Scenario1 **초단기** 1주일 전후	단기 강한 반등 낙폭과대주 로봇/SDV 수혜주	이란 파괴/고립 중동 영향 제한 글로벌 영향 제한	완성차, 한국타이어, 현대오토에버
Scenario2 **단기** 1~3개월	점진적 반등세 배당/실적주 이벤트 대응	이란 파괴/고립 단기 중동 재건/회복 글로벌 영향 제한	기아, SNT모티브, 현대위아, HL만도 현대오토에버
Scenario3 **중기** 6개월 이상	저점 매수 이벤트 대응 타이어 실적 영향↑	이란 파괴/고립 중기 중동 재건/회복 글로벌 -3%대 타격	전쟁 마무리 국면 진입에 따른 완성차/타이어 중심 저점 매수 전략
Scenario4 **장기** 1년 이상	저점 매수 전략 실적 반영 현실화 악재 완화 시점 주목	이란 수요 파괴/고립 중기 중동 재건/회복 글로벌 -5%대 타격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